푸른숲은 우리의 미래, 희망

2006년 4월 14일 금요일, 푸른숲선도원들은 경기도 포천에서 나무 심기 체험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계초, 수락초, 한신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118명과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4명이 참가해주신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푸른숲선도원들은 이날 5년생 전나무 약 4천그루를 한마음 한뜻으로 심어나갔습니다. 자기가 심은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푸른숲선도원들의 이름표를 단 어린 전나무들이 푸른숲선도원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은 한그루녹색회의 안내로 경기도 포천 나무심기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 심벌인 생태연못가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모두가 처음하는 경험이
라 흥분된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행사장소에 도착후, 지도교사들과
푸른숲선도원들은 묘목이 든 망태기, 괭이, 이름표를 가지고 나무 심을 곳에 갔다.
국립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심을 곳에 구덩이를 간격에 따라 파 놓아서 어렵지
않게 자기의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5년생 전나무 묘목에 알맞게 구덩이를
더 깊게 폭도 넓힌 다음 구덩이 밑에 퍼낸 겉흙을 넣고 뿌리를 잘 편 묘목을
곧게 세워 정성스럽게 나머지 흙을 넣고 알맞게 밟아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어 마르지 않게 정성을 드리는 고사리 손들을 보니 대견했다.
시작 시간이 늦어 몇 그루 심지 못한 것이 내심 아쉬웠지만,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나무를 사랑하는 좋은 체험을 해 앞으로 산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큰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함께 일하고 난 다음 시원한 산바람에 땀을 식히며 먹는 도시락도 꿀맛이다.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나도록 열심히 나무심기에 몰두하는
푸른숲선도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자부한다.

- 2005. 4. 16 서울수락초등학교 교사 김성원

*나무를 심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연은 매우 소중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며 자연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정말 후회하였다.
하지만 숲이 땅의 70%를 덮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더 신기한 것은 숲이 국민 한 사람마다 106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내가 숲에게 받기만 하고 주지도 못해서 숲과 나무에게
조금 미안하다. 숲을 위해 이제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

- 서울수락초 푸른숲선도원 4학년 최이초